

치 사

생명의 기운으로 봄소식을 전하는 희망의 계절에, 각고의 노력으로 성취를 이루고, 많은 축복속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스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승가교육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소임자 스님들과 교수님, 그리고 후원을 아끼지 않은 동문스님과 사부대중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종단 발전과 후학양성에 원력이 지대하신 원행스님을 새롭게 총장으로 모시게 되어 오늘의 의미는 더욱 뜻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앙승가대학교는 개교이래 30여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전통과 현대학문을 겸비한 현대적 승려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학의 꽃을 시대의 향기로 피우고 있음을 자부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사부대중의 진심어린 축복과 스스로의 만족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종교인으로서의 기대와 책무에 항상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습득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로 끝이 아니라, 사회와 시민에게 지혜와 자비의 향기를 전하며 함께 호흡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종단의 미래를 이끌어 갈 동량이 되겠다는 자긍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첫발을 내딛을 때의 마음을 잃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정진한다면 그것이 곧 선지식이며, 우리 종단의 미래는

여러분들로 한층 밝아질 것입니다.

출가수행자로서 우리는 평생 학인입니다. 졸업을 해도 교정을 벗어나는 것 외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학인의 자세를 평상심으로 하여 한 순간도 수행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포교와 복지, 그리고 불교문화사업에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은에 보답하는 불제자의 마음가짐으로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나아가 인류의 화합과 상생, 평화와 행복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의식과 도덕성을 전파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생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대승보살을 되고자 성실하게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3년도 중앙승가대학교 학위수여식을 맞이하여 장도의 새출발에 나서는 스님들에게 부처님의 큰 자비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올 한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2014)년 2월 27일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